

		시 민			
문서번호	예방과-23183	담당자	홍보기획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재일자	2014. 10. 24.	김취대	김명호	윤영철	10/24 代이성묵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담당자			박성윤
방침번호		★담당자			강병규

## 제24회 서울소방안전 작품공모전

# 최종심사 결과 및 시상식 계획



**소방재난본부**  
(홍보기획팀)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 시 민 : 유 ■ ( 참여시민 ) 무 □
	● 이 해 당 사 자 : 유 □ ( ) 무 ■
	● 전 문 가 : 유 ■ ( 심사위원 8명 ) 무 □
	● 음 브 즈 만 : 유 □ ( ) 무 ■
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	● 법 령 규 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 타 사 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 자 원 의 활 용	● 중 앙 부 처 : 유 □ (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 기 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	● 관 계 기 관 : 유 ■ ( 행정과(시장상장) ) 무 □
	● 민 간 단 체 : 유 □ ( ) 무 ■
	● 시 산 하 기 관 : 유 □ ( ) 무 ■

# -제24회 서울소방안전 작품공모전-

## 최종심사 결과 및 시상식 계획

시민 안전의식 향상 및 생활 속 안전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한 제24회 서울소방안전 작품공모전 심사결과 및 시상식 계획임.

### I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14. 9. 1(월) ~ 10. 10(금)
- 응모부문 : 4개 부문 (사진, 영상물, 스토리텔링, 불조심포스터)
- 응모자격 및 대상
  - 사진, 영상물, 스토리텔링 : 시민 누구나 (제한없음)
  - 불조심포스터 : 초등학생 (서울시내 초등학교 재학생)

### II 심사 개요 및 과정

- 심사기간 : 2014. 10. 17(금) ~ 10. 23(목)
- 심사장소 : 서울소방재난본부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8명의 외부 심사위원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사 진	이 * *	한양여자대학교	전임교수
	김 * *	한남대학교	외래교수
UCC	홍 * *	서경대학교	전임교수
	김 * *	한양여자대학교	전임교수
스토리텔링	임 * *	한국방송작가협회	이사/작가
	최 * *	한국방송작가협회	작가
불조심 포스터	고 * *	서울미술고등학교	교감
	김 * *	관악고등학교	부장교사

□ 공모 접수물 및 심사 대상 작품 : 1,534점 (사진 538, 영상물 44, 스토리텔링 92, 포스터 860)

□ 각 부문별 심사 기준

○ 사진 부문 : 주제적합성 40% / 창의성 40% / 기술성 20%

○ UCC 부문 : 주제표현, 완성도 평가 등 40% / 기술성 30% / 기타(홍보활용가능, 흥미유발 등) 30%

○ 포스터 부문 : 화재예방 시사성 및 홍보효과 60% / 예술, 기교, 완성도 30% / 제목에 대한 적정성 10%

○ 스토리텔링 부문 : 주제적합성 40% / 창의성 40% / 재난지식 및 흥미성 20%

□ 각 부문별 심사 방법 및 진행 모습

부문	사 진	U C C	포스터
심사 진행 모습			
			
			

○ 사진 UCC 스토리텔링 부문 : 사진 이미지파일, 영상파일, 원고 파일 등 모든 작품에 대해 3차에 걸친 심사 진행 후 최종 수상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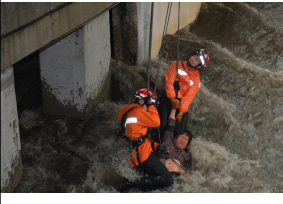



○ 포스터 부문 : 학년별 수준에 맞는 심사 및 3차에 걸친 심사 후 최종 수상작 선정

※ 모든 공모 작품에 대해 소속, 성명 등 개인정보를 제외한 블라인드 심사 실시.

### III 심사 결과

□ 입상작 : 34점(사진8, 영상물9, 스토리텔링8, 포스터9) 【붙임1】

□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작 내용

부문	사 진	U C C	스토리텔링	포스터
대상				
제목	갑작스런 폭우, 그래도 119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소방관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선택	소화기는 우리의 히어로!
수상자	성북소방서 이재호	일반 최원준	구로소방서 황대희	서울 언북초 4학년 신해민

### IV 향후 계획

□ 시상식 및 전시회

○ 일시 및 장소 : 2014.11.10 (월) 서울시청 1층 로비 예정

※정확한 날짜 및 장소는 추후 통지

○ 참 석 자 : 본부 각 과장, 팀장 및 직원, 수상자 및 학부모,  
소방서 홍보교육팀 팀장, 홍보

□ 시상 내용

○ 대표 시상 : 34명

구분	계	사진	영상물	포스터	스토리텔링	시 상 내 용				훈 격
						사 진	영상물	불조심포스터	스토리텔링	
계	34점	8점	9점	9점	8점	상장 및 부상				
대상	4점	1점	1점	1점	1점	상장 및 상금30만원	상장 및 상금60만원	상장 및 상품권30만원	상장 및 상금30만원	서울특별시장
최우수상	4점	1점	1점	1점	1점	상장 및 상금20만원	상장 및 상금40만원	상장 및 상품권20만원	상장 및 상금20만원	서울특별시장
우수상	6점	1점	2점	2점	1점	상장 및 상금15만원	상장 및 상금20만원	상장 및 상품권15만원	상장 및 상금15만원	서울특별시장
장려상	20점	5점	5점	5점	5점	상장 및 상금10만원	상장 및 상금10만원	상장 및 상품권10만원	상장 및 상금10만원	서울특별시장

※ 수상자 상금은 본인 은행계좌로 입금 조치

## V 행정사항

- 수상자는 관할소방서 홍보교육팀장(담당)이 인솔하여 안내
- 시상식 종료 후 작품 전시회 관람이 있을 예정
- 입상작품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 행사 등에 적극 활용 예정

붙임 1. 각 부문별 심사결정서 1부  
 2. 각 부문별 수상작 내역 및 선정 사유. 끝.

## 붙임 1

### □ 사진 부문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대상	갑작스런 폭우, 그래도 119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재호	성북소방서
최우수상	거대한 화마 앞에서	장영환	강남소방서
우수상	힘을 모아	김경호	용산소방서
장려상	화재 대피 훈련	최태권	일반
장려상	한국이 너무 좋다	김은희	서대문소방서
장려상	우승은 우리의 것	장정애	동대문소방서
장려상	나는야 꼬마소방대장	이상철	구로소방서
장려상	따르릉~ 대피하세요	김정화	일반

### □ 영상물 부문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관할소방서
대상	당신에게 소방관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최원준	일반	
최우수상	소방관의 사명감으로..	김민규	송파소방서	송파소방서
우수상	물리쳐라! 방심악마!	강소정	계양1동 주민센터	
우수상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지키기	이민규	서울디자인고	마포소방서
장려상	가슴이 가장 뜨거운 사람들	송은석	명지대학교	
장려상	도시락 왔어요	김희선 외 2명	홍익디자인고	마포소방서
장려상	잠깐 지나갈 수 있을까요	정현 외 3명	한강미디어고	용산소방서
장려상	우리는 전천후다!	고지훈	종로소방서	종로소방서
장려상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심재관	동대문소방서	동대문소방서

□ 스토리텔링 부문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관할소방서
대상	선택	황대희	구로소방서	구로소방서
최우수상	노숙자? 노(no)!!!승자	정성국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우수상	뜨거운 존재감	이건태	구로소방서	구로소방서
장려상	남편의 뒷모습	전해숙	일반	강동소방서
장려상	이게 사람을 살렸어요	표기혁	서대문소방서	서대문소방서
장려상	우리 시대의 영웅	박상필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장려상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박한웅	은평소방서	은평소방서
장려상	3분의 기적, 새내기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 적응기	조연정	영등포소방서	영등포소방서

□ 포스터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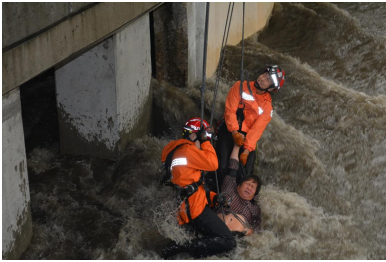
구분	작품명	성명	소속	학년	관할소방서
대상	소화기는 우리의 히어로!	신해민	언북초	4	강남소방서
최우수상	무심코 쫓은 방심 타들어가는 생명	이창희	서이초	3	서초소방서
우수상	불조심	김예지	봉화초	6	중랑소방서
우수상	불을 잡아라	김찬우	동자초	3	광진소방서
장려상	우리나라 우리가족 내가 지키는 불조심	정보빈	신내초	2	중랑소방서
장려상	우리의 안전지킴이	김효빈	동의초	2	광진소방서
장려상	작은 불씨도 크게 보는 마음	이채연	청량초	1	동대문소방서
장려상	불조심 모두의 약속	윤채림	봉화초	4	중랑소방서
장려상	무관심은 이제 그만 관심만이 불조심	이현주	신내초	2	중랑소방서



## 불 임 2

### □ 각 부문별 수상작 내역 및 선정 사유

#### ○ 사진 부문\_대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사진	 <p>갑작스런 폭우, 그래도 119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p>	성북소방서 이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삶과 죽음의 시간 속에서 구조하려는 소방대원의 참 모습이 담겨져 있다. 사진에서 결정적 순간이 포착되었으며 정지된 시간 안에서 긴박감을 느낀다.</li> <li>▶ 긴박감과는 상반되게 안정적인 구도와 배경과 인물이 화면 안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li> <li>▶ 사진은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의 재현이다. 연출 할 수 없는 상황적 현실의 재현이 가장 큰 선정 사유이다.</li> </ul>

#### ○ 사진 부문\_최우수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사진	 <p>거대한 화마 앞에서..</p>	강남소방서 장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대한 화마 앞에서 싸우는 소방관들의 애환이 가득 들어있다.</li> <li>▶ 표현되지 못한 뒷모습에서 더 많은 상상을 하게 만든다.</li> <li>▶ 붉은 색과 대비되는 소방관의 이미지가 선정 사유이다.</li> </ul>

#### ○ 사진 부문\_우수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사진	 <p>힘을 모아</p>	용산소방서 김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면 구도와 인물들의 적절한 비율과 뿜어져 나오는 물과 함께 힘을 느끼게 하는 사진이다.</li> <li>▶ 전체적 구성도 매우 훌륭하다.</li> </ul>

○ UCC 부문\_대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성명	선정사유
영상	<p>당신에게 소방관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p>	일반 최원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관이란 존재를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우칠 수 있도록 연출된 작품이다.</li> <li>▶ 특히 전체적으로 안정된 연출기법과 메시지 전달이 매우 우수하였다.</li> <li>▶ 관객입장에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다.</li> </ul>

○ UCC 부문\_최우수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성명	선정사유
영상	<p>소방관의 사명감으로..</p>	송파소방서 김민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관 입장에서 제작된 영상으로 매우 인상적인 시나리오와 구성이 뛰어난 작품으로 판단됩니다.</li> <li>▶ 특히 안정된 그래픽과 타이밍 기법은 완성된 영상으로 이어졌다.</li> <li>▶ 또한 소방관이라는 열악한 현실에서 사명감으로 다양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는 점이 공감 코드를 불러준다.</li> </ul>

○ UCC 부문\_우수상(2점)

부문	작품(작품명)	성명	선정사유
영상	<p>물리쳐라!! 방심악마!!</p>	일반 강소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이 그림을 통하여 연출된 영상으로 등장하는 캐릭터와 메시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준다.</li> <li>▶ 특히 방심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제작된 구성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전달이 가능하였다.</li> <li>▶ 또한 다양한 연령층의 감상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영상이 매우 큰 장점으로 나타났다.</li> </ul>
영상	<p>시민과 함께 하는 소방안전 지키기</p>	서울디자인고 이민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 대란의 현실에서 초를 다투는 현장의 상황을 실감적으로 잘 나타낸 작품이다.</li> <li>▶ 사소한 불장난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의 입장을 섬세하게 표현한 영상작품이다.</li> </ul>

○ 포스터 부문\_대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포스터		언북초 4학년 신해민	<p>▶ 포스터의 특성은 전달력, 주목성, 참신성, 가독성 등을 들수 있는데 이 작품은 '소화기가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p> <p>▶ 소화기 이미지를 귀엽게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눈길을 끌게 한다. 주목성과 참신성면에서 좋은 평가를 주었다.</p>

○ 포스터 부문\_최우수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포스터		서이초 3학년 이창희	▶ 참신성면에 있어 약간 부족하지만 화면의 구성이 좋고 가독성과 전달력이 매우 우수한 작품이다.

○ 포스터 부문\_우수상(2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포스터		<p>봉화초 6학년 김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조심’이라는 새글자를 소방서 마크와 소방차 등을 이용해 재치있게 조합한 면이 눈에 띈다.</li> <li>▶ 배경을 구름으로 밝게 처리해 맑은 느낌의 포스터를 완성한 면은 좋은 평가를 내렸다.</li> <li>▶ 하지만, 전체적으로 미완성의 느낌이 강해 포스터로서 주목성을 크게 갖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li> </ul>
포스터		<p>동자초 3학년 김찬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을 잡아라’는 불을 현상수배한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li> <li>▶ 단, 글씨나 내용면에서 마무리가 아쉽고 미완성의 느낌을 주었다.</li> </ul>

○ 스토리텔링 부문\_대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스토리텔링	선택	구로소방서 황대희	<p>▶ 생명을 살려야 하는 소방관으로서 인간적 갈등이 잘 표현되어 있고 1초라도 빠른 선택이 기적을 만든다는 소방관 본연의 임무를 되돌아보게 하는 아름답고 몽클한 글이었습니다.</p> <p>▶ 표어도 정말 좋아 119 홍보에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p>

○ 스토리텔링 부문\_최우수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스토리텔링	노숙자? 노(no)!!!승자	영등포소방서 정성국	▶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까지 구하는 소방관의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 스토리텔링 부문\_우수상(1점)

부문	작품(작품명)	소속/성명	선정사유
스토리텔링	뜨거운 존재감	구로소방서 이건태	▶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상상도 할수도 없는 뜨거운 불길의 존재감과 그 위기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고 소방관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 《 스토리텔링 부문\_대상작 》



### 선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삶은 선택의 연속되는 과정이고 인간은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간다. 119 구급대원이기에 겪어야 했던 슬프고도 아픈 선택의 순간을 나눠 보려한다.

3개월간의 소방학교 교육을 수료한 후 시보의 신분으로 구로 소방서 독산 119 안전센터에 배명받게 되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첫날의 야간근무를 마친 후 맞게

된 출근 2일째 토요일 당번근무!

구급 주임님의 연가로 운전원과 단들이 시작된 24시간은 앞으로 나의 소방생활에 기준을 세우고 가치관을 확립하게 된 중요한 사건을 만들어 주었다.

오전 11시 “구급출동, 구급출동” 센터내 긴장과 적막을 깨는 구급 출동 수보가 떨어졌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는 현장을 향해 달려 나갔다.

“독산여섯 비발”

응급 환자 수보 발생 상황은 이러했다. 전기 감전에 의한 CPR 환자!

현재 의료 지도중이며 동료에 의해 CPR 진행중. 현장 도착까지 4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요란한 사이렌 소리만큼이나 흔들리는 차내에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 라는 두려운 생각에 두 손이 떨려왔다.

‘대학생 시절부터 수도 없이 그려왔던 CPR 상황이 아닌가’

‘침착하자, 침착하자 또 침착하자’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토콜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장비를 준비했다.

구급차에서 하차와 동시에 한손엔 A.E.D(자동제세동기) 다른 한손엔 산소 장비를 들고 현장을 향해 달렸다.

현장도착과 함께 눈에 들어온 광경은 동료에 의해 CPR이 진행되고 있는 환자의 모습... 아니 환자 둘의 모습! 신고자가 신고당시 발생환자가 2명임을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찾아온 선택의 순간 환자는 둘 A.E.D는 한 대! “여기에요, 도와주세요!” 둘은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다급한 공장 직원들의 외침 “무슨 일 났나봐. 죽은 거 아니야?” 웅성웅성 거리는 주변 주민들의 수근거림 “여기 독산 여섯 CPR 급자 2명으로 추가 급차 비발 요망” 운전원의 격앙된 무전 목소리 그 한 가운데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장비를 들고 서있는 출근 2일째 시보 구급 대원! 선택을 오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 찰나의 순간 50대의 아버지 20대 중반의 아들 나의 선택은 아들이었다. 거친 숨을 크게 한번 몰아 쉰 후 아들에게로 갔다.

의식 없음, 호흡 없음, 맥박 없음 기도개방 구인두 기도기 삽입, 흉부압박 실시! 이마를 타고 손등으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흉부 압박이 시작됐다. 5cycle의 흉부압박 후 리듬 분석결과 Ventricular Fibrillation (심실세동)이었다. “제세동이 필요 합니다”. 라는 안내 멘트와 함께 1차 200J SHOCK을 실시했다.

“하나, 둘, 셋, 넷.....스물아홉, 서른” 다시 한 번의 5사이클 흉부압박 2차 분석 결과 또다시 VF(심실세동) 200J 2차 SHOCK 실시 주변동료들의 안타까워하는 마음들과 걱정이 합쳐져서 었을까 흉부가 힘차게 튀어 오르며 심리듬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아들의 심리듬이 회복되는 순간 추가 출동한 구급대가 도착 하였다. 다른 구급차가 도착했음을 알기라도 했는지? 아들은 자발호흡과 함께 혈압(BP) 맥박도 급격히 안정을 찾아갔다. 아들을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출발하며 타 구급대에 의해 CPR이 실시되고 있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봤다.

강남 성심 병원에 도착하여 의료진에 환자를 인계했다. 땀에 흥건히 젖은 지친 모습에 멍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버린 듯한 느낌. 정신을 부여잡고 환자의 소지품에서 휴대전화를 찾은 후 환자의 어머님께 상황설명을 위한 전화를 드렸다. “어. 아들~” 휴대전화 너머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너무도 힘이 들었다.

“저.....119 구급 대원입니다.” 내가 한말은 이게 전부였던 것 같다. 구급대원이라는 짧은 말을 들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셨고, 나 또한 아프고 멍멍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한동안은 그냥 그렇게 서서 눈물과 땀으로 범벅된 얼굴을 훑치고 또 훑었다.

병원이송 후 추후에 전해 들었던 대략의 사고 경위는 이러했다. 토요일 업체는 쉬는 날이었지만 공장에 에어컨 실외기 수리요청을 받고 출근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돕겠다며 따라나선 아들..... 실외기를 수리하던 중 발생한 고압전류에 의한 감전 사고. 아버지는 결국 병원 이송 후 사망 하였고, 아들은 회복되어 손과 얼굴의 화상흔적 치료를 위해 한강성심 병원으로 옮겼다.

어머니는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과 아들 누구에게 먼저 달려가실까? 내가 아들을 선택 하지 않고 아버지를 선택했다면, 아버지는 살 수 있었을까? 아버지는 나의 선택을 원하셨을까?

살아남은 아들이 아버지의 몫까지 훌륭하게 살아가길.....그것으로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아들의 삶으로 증명해주길 바랐다. 그렇게 머릿속 가득 물음표(?)를 남기고 가슴 가득(!) 느낌표를 남기며 귀소했다.

이번 구급 출동 건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 첫 번째는 선택의 무게감이다. 나의 선택이 누군가에겐 죽음에서 새 삶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119구급 대원이 깊어지고 가야할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이다.

‘환자가 보게 될 마지막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 아니 환자가 다시 보게 된 처음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 ‘나의 선택이 끝이 될 수 있고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나의 거룩한 부담감 그 끝맺음은 항상 시작이길 소망한다.

두 번째는 기적의 현장 그로 인해 변화된 구급대의 마인드이다.

심정지 환자가 현장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의 순간을 함께했다. 기적을 직접 보았기에 구급팀 자체에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긍정의 선한 영향력이 생기게 되었으며 선한 영향력은 곧 좋은 팀워크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후로 우리 구급팀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5번이나 되는 기적을 다시 경험할 수 있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 했어도 가장 위급한 심정지 상황 환자를 살리는 첫 번째 장비는 수천만원 하는 고가의 장비가 아닌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맞잡은 흥부 압박을 두 손이다.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순간 속에서 얼마나 옳은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날의 슬프고도 아팠던 선택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갈 것이다.

**1 초의 옳은 선택이**

**1 명의 목숨을**

**9 구한다.**

끝.